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1년 10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현장에 신규 유입되는 자활대상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사례

황천호 경북울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 공공 일자리와 은둔형 인간에 대한 이해

공공 일자리는 왜 필요한가?

스스로 자기 극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 일자리는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갖게 된다. 공공 일자리가 없다면 출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출구가 없다는 것은 갇힌다는 것이고 갇힌다는 것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한된 삶의 탓에 걸려 더 나아가지 못함을 알면서도 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방임 또는 타살이다. 공공 일자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

왜 은둔형 인간에 대한 이해인가?

우리는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은둔의 탓에 걸려 외톨이로 고립의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는 은둔형 고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도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은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태도나 방법은 달라진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하려고 한다. 그것이 출발이고 시작이며 출구라고 생각한다.

2. 공공 일자리 확대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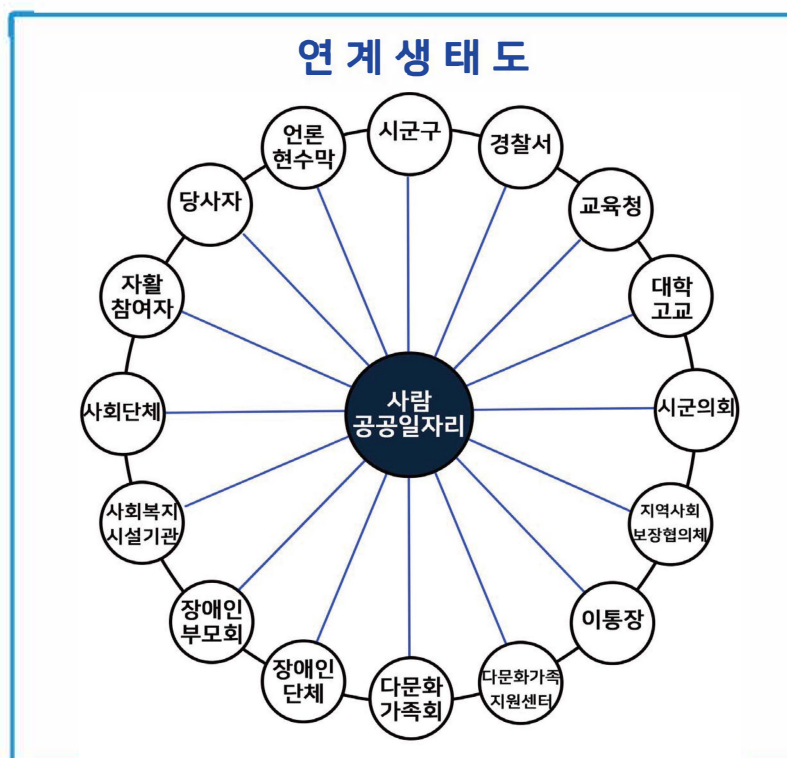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는 저소득층이라는 광의적 해석으로 차상위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근로 능력 정도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켰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한계로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들을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하였으며 일자리 제공이 되지 않았다. 성과 중심의 목표가 아닌 존엄한 사람 중심의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복합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 일자리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3. 공공일자리 대상 찾기

은둔형 외톨이와 은둔형은 아니지만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경·중증 장애인, 다문화 여성, 북한이탈주민, 각종 중독자, 저소득층 등이 공공 일자리 대상이다 행정상 나타나는 대상 외에 숨은 대상들이 사각지대에 잠적하여 있기에 다양한 채널로 찾아야 한다.

자발적 신청으로 발굴되지 않는 대상까지 각종 망을 형성하여 세밀하고 촘촘한 연계를 이루고, 치밀한 생태도를 작성하여 상시 활동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유형



출처: 고용노동부(2019-2021),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정부지원 일자리 통합공고 내용 각색

4. 대상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극복

공공 일자리 대상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서는 단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일상생활 지원과 경제활동 및 심리·정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을 공공과 민간이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 사회적으로 무능함이 아닌 가능한 인간으로 세워야 한다. 지팡이가 되어 줄 서비스로 일어나게 한다면 걸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신규 유입되는 자활사업 참여 사례]

연번	참여자	소개 및 참여배경	소속
1	전00	21세(여), 고도비만, 외모로 인한 자존감 낮음 -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취업 의지 미약. 집에서만 생활해옴 - 아버지가 자활참여자로 근무 중에 있어 발걸 및 연계	자활 도우미
	지원 서비스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 활동 지원	
2	이00	32세(남), 지적장애 3급 -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경증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음 - 취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해 오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연계로 참여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자립 재원 마련	
3	윤00	30세(여), 지적장애 3급 - 모(지적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해옴 - 식당 등 아르바이트로 생활해 오던 중 노동력 착취로 신고, 주민센터 연계로 참여 - 현재 간병사업단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보조로 단순 업무 수행	간병 사업단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지원	
4	김00	30세(여),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상태 지속 - 어렸을 적 어머니의 사망으로 가족의 지지가 지원이 없이 성장해옴. 은둔형 청년 - 취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며, 취업 의지 또한 약함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5	이00	23세(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 고아로 성장해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옴. 취업 의지 미약하며 자립의지 약함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바리스타자격증 취득 지원 및 상담을 통한 자존감 회복	

연번	참여자	소개 및 참여배경	소속
6	김00	29세(여), 북한이탈주민 - 탈북 후 식당 등 고된 노동 현장에서 일해오고 있었음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경찰관의 지원으로 센터에 연계됨 - 근로 능력은 우수하나 참여 지속 여부가 불확실함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7	마사000	32세(여), 다문화여성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 다문화지원센터의 연계로 참여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한 자립재원 마련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 상담	
8	김00	26세(여), 지적장애 3급 - 참여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 약 복용 - 취업 의지가 강해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학대로 인해 중단 - 자활참여자인 어머니의 소개로 참여 - 현재 정신과적 약 복용 하지 않음, 대면 서비스를 통해 극복, 자존감 높아짐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문학 활동 지원 - 통장 가입 및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9	이00	31세(여), 장애 1급(지적 · 청각장애) - 취업 이력 없음. 취업처 없음 -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참여하던 중 자활센터 카페사업장 직업 체험활동으로 연계. - 비록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있으나, 바리스타 업무 기술은 잘 수행하여 센터에 참여 하게 됨. - 참여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냄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10	최00	32세(여), 대학졸업(사회복지), 지적장애등급 판정 중 - 소심하며 내성적임. 신장이 매우 작음. - 아르바이트나 단순 일자리 경험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함 - 서울지역에서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자활센터에 참여	커피 사업단
	지원 서비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	

연번	참여자	소개 및 참여배경	소속
11	이00	• 28세(남), 대학졸업, 할머니가 주 양육자였으나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 고등학교 시절 왕따 및 폭력 당함. 군대 부적응 • 동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들로 인해 주로 야간에 활동 • 우울증 약 과다 복용 중에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고립되어 생활해 오던 중 발굴 • 거주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상담 결과 자활에 참여하기로하였으며, 대인기피증 호소로 버스타기조차 어려웠음 • 담당자와 근처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도움으로 함께 버스 타며 출·퇴근 연습을 하였으며, 병원 동행으로 적절한 약 처방 및 치료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호전 중	세차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주거환경개선 및 세탁서비스 지원 • 말반찬도시락 지원 •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 인문학 활동을 통한 자존감 회복 • 동아리 활동(목공)	
12	최00	• 27세(남),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당함, 대인관계 어려움, • 검정고시로 졸업 •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 • 졸업 후 근로 의지나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 이혼 가정으로 아버지가 주 양육자였으며 주거환경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 • 자활참여자인 아버지의 소개로 참여 • 취업 의지는 있으나 근로 능력이 매우 약함 • 대인 관계 능력 향상됨	세차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상담서비스 • 주거환경개선 및 세탁서비스 지원 • 인문학 활동 및 동아리 활동(목공)	
13	박00	• 29세(남),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대학교 중퇴 •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 현장 등 막노동으로 생계유지 • 어머니는 면사무소 자활참여자, 동생은 지적장애 •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 여러 차례 개인 상담과 지지로 사업단 적응 중 • 컴퓨터 작업능력이 우수하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세차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지원 • 상담서비스	

연번	참여자	소개 및 참여배경	소속
14	김00	• 26세(남), 근로 의지에 비해 근로 능력 부족 • 6인 가구(아버지, 어머니, 누나, 남동생 2명) • 부모님과 누나는 경제·사회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임 • 작은 동생은 군 생활중이며 막내동생은 학교를 다니고 있음 • 대상자가 주 수입원으로 자활센터에 참여함 • 세차사업단 배치 후 부적응, 온새미로 사업단으로 이동 • 종량기 청소, 승강장 청소 등 근로능력 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으로 배치하여 적응 중임 • 근로 능력 등을 고려 취·창업이 힘들다고 판단	온새미로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인문학 활동 지원	
15	주00	• 48세(남), 알코올중독, 1인 가구 • 망상 등의 정신병력이 보이거나 진단받지 않음 • 면사무소 자활참여 중이었으나 센터로 연계, 세차사업단에 참여 중 • 거주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청결서비스 등을 지원하려 하나 거부함	세차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주거환경개선 및 세탁서비스 지원 • 상담서비스 • 밀반찬도시락 지원	
16	강00	• 32세(남),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으나 경계성 지능장애로 보임 • 혈우병, 근로 능력 미약 • 상황파악 및 대처기술 부족 • 술집 아르바이트나 단순 노동 외 취업 이력 없음	온새미로 사업단
	지원 서비스	• 동아리 활동 지원(바리스타)	
17	홍00	• 32세(여), 다문화 여성 • 식당 알바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 근로 능력이 뛰어나며 자활·자립 의지 강함 • 참여 당시 아이 양육으로 인한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 요청	금실은실 사업단
	지원 서비스	• 양육에 필요한 후원 물품 지원 •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자립 자원 마련	

연번	참여자	소개 및 참여배경	소속
18	지나 000	41세(여), 다문화 여성 2017년 배우자가 자활참여주인으로 근무. 함께 참여 - 취업 이력 없음. 2019년 자국(필리핀)으로 출국 후 배우자의 필리핀 부적응으로 2020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재참여	급식 사업단
	지원 서비스	어린이날 등 양육에 필요한 후원 물품 지원	
19	장00	26세(남), 지적장애 2급 -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 (실질적 보호자는 큰어머니) - 일반 기업에서 근로 기회제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장갑)에서 동료 간 다툼이 발생하여 폭력에 의한 턱뼈 골절로 인하여 보호작업장을 그만두고 재활 치료 후 울진지역자활센터로 연계됨 -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근로를 통하여 주 수입이 발생하는 가구원임 - 종량기 청소, 승강장 청소 등 근로 능력 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으로 배치하여 적응 중임 - 근로 능력 등을 고려 취·창업이 힘들다고 판단	온새미로 사업단
	지원 서비스	인문학 활동 지원	
20	김00	40세(남), 독신, -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며 본인을 드러내지 않음 - 건강상태, 근로 능력 등이 우수함 - 공장 등에서 취업 이력 있음	세차 사업단
	지원 서비스	밀반찬 도시락 지원	

5. 맺으며 : 존엄한 인간으로 볼 때 그들이 살아난다

우리가 그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이해하며 낙인이나 무능한 인간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이 있으며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사회 적응력을 키우며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적합하게 주어지고 성과중심이 아닌 노동의 소중함과 자신이 쓰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닫힌 문은 그들에게 출구가 될 수 없다 열린 문으로 나오도록 손을 잡고 함께 우리 속에서 서툰고 두렵고 빈약한 의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참여를 지지하며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로서의 순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 일자리로 결국 그들은 살아난다